



21세기를 대비 낙농육우발전을 위한 21가지

한국 낙농의 오늘과 내일



김현욱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1. 한국낙농의 오늘

한국의 낙농산업은 1960년대초부터 정부주도의 낙농진흥정책과 국민의 소득증대 그리고 우유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이해에 의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현재 2만 3천여 낙농가와 1만 9천여 명의 유가공산업 인력을 수용하면서 약 4조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큰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한국축산의 총생산액중 약 19%를 차지하는 낙농은 국민 1인당 1년에 67 kg 정도 먹을 수 있는 우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22.7%를 공급해주고, 소가죽과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므로써 막대한 자원생산은 물론 환경을 지키는 유기농업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한국의 낙농산업은 국민의 영양을 가장 짧은 기간내에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으며, 농민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였고, 유가공산업을 크게 성장시켰으며 국토의 생산성 향상에도 이바지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의 인식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낙농은 곡물을 생산하기 어려운 땅에서도 풀을 길러서 젖소에게 먹이므로써 인류 최고의 식품인 우유와 고기를 생산해 주고, 국토의 생산성을 높여주며, 토양을 보존해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환경보존형 기간산업이라고 인식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분유의 재고가 증가하고 젖소값이 폭락하면서 한국낙농산업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시장이 국제적으로 개

방되어 외국의 축산물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료값과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고, 정부의 대비책은 실감이 나지 않으며, 낙농민의 의지가 약해지고, 국민의 신도불이 정신도 해이해 지는 등 낙농환경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좀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낙농인들이 힘을 합쳐서 오늘의 어려움을 예견하고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말일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이 오리라는 예견은 오래전부터 제시되어 왔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는 낙농진흥법을 개정해서 낙농기반을 단단히 해야 된다고 얼마나 여러해를 두고 일하고 설득하고 했는지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낙농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

21세기를 대비 낙농육우발전을 위한 2가지

한 편이다. 시유의 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일본 등과 함께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에 속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생산되는 우유와 유제품이 선진 낙농국의 유제품보다 더 품질이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

한국의 낙농업계에서는 풀을 생산해서 낙농을 하려는 노력이 사라지고 있으며, 심지어 건초까지 수입하고 배합사료를 먹여서 편하게 낙농을 하려고 한다.

당장 돈만되면 막대한 량의 고기와 유제품을 수입해 들여오는 대기업체들을 방치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영국, 독일, 불란서와 같은 세계적인 공업 국가들이 낙농에 그렇게 많은 투자와 장기적인 발전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실로 한심한 국민이다. 현명하지 못한 국민, 자립심과 용기가 부족한 낙농인, 집단이기주의, 전문성 없는 행정부, 근시안적 편의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30년간 이룩한 한국의 낙농산업을 지금 하루 아침에 무너트리려 하



고 있는 것이다.

국내 산업의 기반 강화와 시장 개방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대기업들과 각종 단체들은 앞다투어 가면서 막대한 량의 고기와 분유를 수입해서 국내 산업을 고사 시키고 있고, 국민들은 품질논쟁과 축산물 제조 판매회사들의 상업성 홍보에 현명하게 행동하지 못하였으며 경제대국은 경제논리로만 농업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농림당국은 축산물가공업무를 보사부에 내준채 수급조절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높은 속도로 증가하던 우유의 소비

가 1988년부터 둔화 되면서 한국의 낙농산업은 수급의 합리적 조절, 생산의 효율성 제고, 풀사료의 생산증대, 우유 품질의 향상, 유제품 생산유통비의 저하 등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근본적인 낙농발전의 기반확충을 위해 정부는 낙농진흥법의 개정을 추진되게 되었으나 낙농주체와 관련자들의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은 오늘날 까지도 법의 개정을 저지하므로서 무너져 봐야 조금 아는 낙후된 국민성을 보여 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는 쇠고기와 유제품의 정확한 수요예측에 실패하므로서 낙농 및 한우산업에 전반적 불안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 상태는 분유재고의 점증과 최근의 젓소가격의 폭락으로 표현되고 있다.

2. 변화하는 세계의 낙농

현재 우리는 급격하게 소용돌이치는 격변의 세계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격렬한 변화의 원동력은 전자통신분야(인터넷, 텔레비, 전자우편 등)의 새로운 기술이 급속히

1996년 11월말 현재 유제품 수입량

유제품 및 유사유제품	수입물량 (kg)
유장분말	18,809,550
치즈	13,487,866
유당	8,996,708
생크림	5,608,375
케이스	5,247,970
코코아조제품	11,961,045
분유조제품	8,250,518
버터 아이스크림 조제품	11,401,290

* 1997. 2. 11. 축산신문(제1117호) 자료

21세기를 대비 낙농육우발전을 위한 21가지

개발 보급되고 항공교통이 급속히 확장되는 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에서 발생한 지식이나 뉴스가 순간적으로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서 전세계의 지식 및 세계의 뉴스가 되어 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현상이다.

공산사회주의의 몰락과 시장경제의 확산, WTO의 출범등에 의한 세계시장의 단일화, 남반부 국가들의 급격한 인구팽창, 전세계적인 도시화의 가속화, 기업의 국제화 등이 매우 빠른 속도로 어지럽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변화의 격랑속에서 나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낙농산업도 급격한 변화를 거치고 있다.

낙농의 특성상 전세계적으로 낙농협동조합의 위치가 확장, 강화되고 있으며, 낙농은 가장 많은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환경 보전적인 농업으로 인식되고 있고, 낙농과 유가공산업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동시에 유제품의 유통도 대규모화되어 가고 있다. 한편 우유의 식품영양적 가치의 인식이 더욱 향상되면서 우유 및 유제품이 다른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양이 증가하고 있다. 낙농의 자연보호기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유가낙농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머지 않은 장래에 착유로봇의 이용이 확산될 예정이다.

서구사회는 인구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핵가족이 증가하고, 외식이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한국의 낙농산업도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속에서 고립될 수 없으며 많은 변화와 개혁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낙농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낙농기반의 강화에서 부터 힘을 써야 한다. 낙농이 제모습을 찾도록 온 국민이 도와 줘야 되며 정부는 낙농의 제모습 찾기운동을 재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며, 직장여성이 증가하면서 식사준비에 소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식품과 영양에 대한 개념이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순수 및 자연식품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고 식품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 영양적 및 위생적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소비하기 편하고, 맛이 좋으며 환경친화적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새로운 식품에 대한 기호성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함량이 낮고 사용하기 편리한 기능성 유제품의 소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3. 한국낙농의 내일

한국의 낙농산업도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속에서 고립될 수 없으며 많은 변화와 개혁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낙농문제도 단편적인 대책으로 해결될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 국제적으로 개방된 한국의 시장이 한국만의 시장이 아닌

국제시장이기 때문에 일시적 대응책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한국의 낙농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낙농기반의 강화에서 부터 힘을 써야 한다. 낙농이 제모습을 찾도록 온 국민이 도와 줘야 되며 정부는 낙농의 제모습 찾기운동을 재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독일이나 화란과 같이 땅과 풀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곳에서 환경을 지키며 낙농을 하는 낙농인에게 국토의 환경관리비를 지원하므로서 낙농의 제모습을 지키는 낙농인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유제품과 고기를 수입하는 대기업과 단체에게는 국토의 환경관리비용의 분담을 의무화 하고 그 재원으로 환경을 지키며 낙농을 하는 낙농인을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낙농만은 기필코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과 구체적 정책이 나와서 낙농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21세기를 대비 낙농육우발전을 위한 2가지

된다. 한국의 낙농생산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낙농인들 자신에 의해 지속되어야 하며, 가공 및 유통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정책이 정부와 유업체에 의해 강구되어야 한다.

북한과 아프리카는 공산품이나 무기가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식량 때문에 망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정부는 직시하고 농업과 축산업을 사양산업시 하는 정책을 탈피하고 국민이 한국의 농업과 축산업을 사랑하도록 하는 발상과 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낙농의 발전기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낙농진흥법 개정안임을 모르는 낙농인은 없을 것이다.

많은 낙농인 및 농업인들은 행정당국과 정책분야의 전문가와 전문성의 부족을 이야기 하고 있다. 낙농과 농업을 알고 배운 사람이 낙농과 농업의 행정과 정책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생 책임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요청되고 있다. 농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대기업의 농산물 수입부서에 근무하면서 한국농업과 농민을 울리는 일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줄 알고 느끼게 되어 된다.

정부는 낙농인들의 가공조합을 적극 육성하는 더욱 강화된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 한국의 낙농인이 생산하는 우유제품과 고기제품이 한국의 낙농인과 국민의 자존심을 키워 줄수 있도록 지원과 발전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낙농인들과 유업체는 한국의 낙농산업과 국민의 유제품소비가 국제적인 경향을 이탈할 수 없음도 잘 이해하여 낙농조합의 발전과 건강지향적 신선유제품의 발전에 힘을 모아야 된다. 초기에 한국의 낙농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민간 유업체들은 한국의 아이스크림과 치즈 시장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에 실패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이들이 시유와 발효유시장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아니 이들 유제품의 시장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 보다 이들 제품을 수입해서 돈버는 것이 훨씬 쉬운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천 기술과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번창하는 것을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낙농인들이 낙농의 제모습 찾기에 앞장 설 때에 한국의 낙농은 그 깊은 힘을 서서히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낙농인들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풀사료를 생산하고 분노를 토양에 환원 시키면서 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유기적인 낙농을 하고, 국토의 환경을 지키고 다듬는 낙농인에게 정부는 국토의 환경관리비를 지원하고, 낙농인 조합이 가공장을 만들어서 향토의 유제품을 생산하여 소득을 올리면서 다른 직장의 국민들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걱정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

는 낙농인 위주의 낙농정책이 이 나라의 낙농을 오래 오래 지키고, 낙농이 이 나라의 국토와 국민을 오래 오래 지켜줄 수 있는 길이 될 것으로 믿는다.

유제품과 쇠고기의 가격경쟁력만을 추구하는 정책은 국제화된 한국시장에서 한계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 우리는 한국의 신선유제품과 토착축산물이 품질경쟁력이 있음을 여러곳에서 발견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물론 한국의 소비자도 품질 우선적 소비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낙농인과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러한 품질경쟁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품질중심적 그리고 낙농인 중심적 낙농정책을 추구하고 노력한다면 21세기의 한국낙농은 어둡지만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가 개정될 낙농진흥법임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낙농을 사랑하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 법의 성공적인 정착에 힘을 모아야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너무 이상적이고 단순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조국은 우리 모두가 끈질기게 우리의 이상을 향해 싸워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발전이 있는 것이며 진리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것임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소박한 이상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필자연락처:0331-290-2342)